

2019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보고서

- 출장기간 : 2019. 10. 10 ~ 10. 19(8박 10일)
- 방 문 국 : 영국, 프랑스, 독일
- 출장인원 : 12명(의원 9, 수행공무원 3)
- 주요내용 : 보건·복지·아동보육 해외선진사례 및 전문기관 벤치마킹 등



■ 목 차 ■

I. 출장 개요	1
II. 출장 목적	1
III. 출장자 명단	2
IV. 세부 일정	3
V. 방문 기관별 현황	4
1. 슈투트가르트 부모자녀센터	4
2. 하이델베르크 가족연합회	10
3. 프랑스 공립노인요양시설 MRI	17
4. 프랑스 Issy-les-Moulineaux 사회관리센터	22
5. 프랑스 가족연합회	29
6. Age UK	36
7. Southwark 복지부	42
VI. 총 평	49
VII. 언론보도자료	50

2019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보고서

- ◇ 보건·복지·아동보육 관련 해외선진사례 수집 및 전문기관 벤치마킹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한 의정역량 및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

I 출 장 개 요

- 출장기간 : 2019. 10. 10(목) ~ 10. 19(토)/8박 10일
- 방 문 국 : 독일, 프랑스, 영국
- 방문기관(7개 기관)
 - 독 일 : 슈투트가르트 부모자녀센터, 하이델베르크 가족연합회
 - 프 랑 스 : 프랑스 공립요양원 MRI, 프랑스 사회관리센터
프랑스 가족연합회 UNAF
 - 영 국 : Age UK, Southwark 복지부
- 출장인원 : 12명
 -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9명)
 - 수행공무원(3명)

II 출 장 목 적

- 보건·복지관련 해외선진사례 수집 및 전문기관 벤치마킹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 및 가족친화 정책 방향 연구
-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실태 파악 및 도정 접목 방안 모색
- 노인요양·돌봄서비스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선진 사례 조사

Ⅲ 출장자명단

○ 행정보건복지위원(9) 및 수행공무원(3)

구 분	성 명	담당업무
계	12명	
위원장	박 영 서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활동 총괄
부위원장	임 미 애	•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정책 조사
위원	김 상 조	• 고령화에 따른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방안 연구
”	김 하 수	•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족친화적 정책사례 발굴
”	김 희 수	• 네트워크기반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례 조사
”	나 기 보	• 일가정양립 문화 정착을 위한 실행방안 조사
”	박 미 경	•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방안 조사
”	배 진 석	• 장애인 고용증진 및 안정된 생활 지원정책 조사
”	홍 정 근	• 노인돌봄서비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례 조사
수석 전문위원	김 운 호	• 기관섭외, 질문자료 작성
주 무 관	김 두 홍	• 기관섭외, 안내, 수행 등
”	배 창 욱	• 영상 및 사진촬영 등

IV 세 부 일 정

일자	장 소	교통편	연수일정	비 고
10.10(목)	인 천 프랑크푸르트	대한항공 (KE905)	▶ 12:50 인천공항 출국(비행시간 11:50) ▶ 17:40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도착	1일차
10.11(금)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하이델베르크	전용차량	공식방문 : 슈투트가르트 부모자녀센터 공식방문 : 하이델베르크 가족연합회	2일차
10.12(토)	하이델베르크 바트메르겐하임 프랑크푸르트	전용차량	현장방문 : 요양도시 바트 메르겐하임 기관방문 자료수집 및 정리	3일차
10.13(일)	프랑크푸르트 파 리	전용차량 TGV	기관방문 자료수집 및 정리 ▶ 파리 이동(TGV) 이동시간 : 4시간	4일차
10.14(월)	파 리	전용차량	공식방문 : 프랑스 공립노인요양시설 MRI	5일차
10.15(화)	파 리	전용차량	공식방문 : 프랑스 사회관리센터 기관방문 자료수집 및 정리	6일차
10.16(수)	파 런던	전용차량 유로스타	공식방문 : 프랑스 가족연합회 ▶ 런던 이동(유로스타) 이동시간 : 2시간 15분	7일차
10.17(목)	런 던	전용차량	공식방문 : 영국 노인자선단체 Age UK	8일차
10.18(금)	런 던	전용차량 대한항공 (KE908)	공식방문 : 영국 Southwark 복지부 ▶ 19:35 런던공항 출국(비행시간 11:00)	9일차
10.19(토)	인 천	대한항공 (KE908)	▶ 14:35 인천공항 도착	10일차

V

방문기관별 현황

1 슈투트가르트 부모자녀센터 (10. 11. / 2일차)

■ 일반 현황

○ 기관 정보

- (명칭) Eltern-Kind-Zentrum
- (주소) Stuttgart-West e. V. Ludwigstr, 41-43, 70176 Stuttgart
- (대표번호) + 49 711/50 53 68 -40 /-30
- (홈페이지) www.eltern-kind-zentrum.de

○ 역할 및 기능

- 홀로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의 모임에서 비롯되어 1986년 창립
- 여성들의 네트워킹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열린공간
- 영유아보육실, 아동긴급보호소, 가정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 기관 소개 내용(담당자: Elke Arenskrieger)

- 모든 세대가 한 공간에서 어우르는 융합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여 2001년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됨
- 보육시설은 건물 내와 밖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규직 및 계약직을 포함한 50명 정도 근무(자원봉사자 40명 지원)
- 0~6세 아동 100명 정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 이용시간은 오전8시 30분 ~ 오후 6시, 각종 편의시설도 이용가능
- 아이를 단순히 센터에 맡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며, 부모들 간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토록 함
- 센터 운영비의 75%는 슈투트가르트 시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25%는 운영이익금과 후원금으로 충당

- 25% 중 대부분은 후원금이며, 건물 내 커피가게 운영과 휴일에 장소임대료로 들어오는 수익금이 운영이익금으로 계상.
- 2006년에 독일연방정부에서 각 도시마다 부모자녀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함.
- 종합병원과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 센터 내 운영프로그램은 월요일~금요일 운영, 대부분 무료이며, 모든 세대가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 보육시설에 식사를 공급하는 별도의 식당 운영, 식단은 채식 위주임.
- 센터 내 노년층 주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명이 거주함. 젊은세대와 나이가 많은 세대가 한 공간에 있을 수 있는 올제너레이션 센터(All Generation Center)로 볼 수 있음.
- 센터의 핵심운영전략은 크게 4가지임. 첫째, 모든 여성들은 본인의 능력을 센터로 가져와서 사회와 같이 공유함. 둘째, 이 곳은 '공공의 거실'로 누구든지 쉽게 방문할 수 있고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음. 셋째, 모든 여성들은 그들의 노동에 대하여 정당한 대접을 받음. 넷째, 부모들이 재능을 판매하는 동안 아이들은 돌봄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부모자녀센터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임.
- 부모자녀센터는 여성들이 직업을 찾을 수 있는 열린공간의 역할도 하며 여성들은 육아의 경험을 활용하거나 아이 발달 과정에 대한 강연도 하고 있음.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모임을 하고, 정보교환을 하고 있음.
- 중요한 것은 같이 아이를 돌보면서 재능을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갖는 것임. 서로 같이 배우고 돕는, 다양성의 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있음.

■ 주요 질의 · 답변 내용

Q : 센터 내 식당에서 채식으로 식단을 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A : 두 가지 이유가 있음. 첫 번째 이유는 위생상의 문제임. 육류를 냉장 보관할 시설이 충분하지가 않아 조리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 이유는 각기 다른 국가에서 오는 아이들이 육류에 대한 문화적 반응이 다르기 때문임. 채소는 센터 내 텃밭에서 가꾸는 채소를 이용하고 있음. 식사시간 이외에는 식당을 오픈하고 있어 센터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식재료를 가지고 와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Q : 보육시설에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긴급히 보육을 맡길 상황이 되었을 때 이 곳에 아이를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는지?

A :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곳 독일에서는 0~3세와 4~6세가 두 그룹으로 구분됨. 각각의 그룹에 따른 교육과정이 다름. 교육의 주 과정은 가정과 사회라는 주제로 운영되고, 앉아서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등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음. 교육의 방향은 사회성 발달 및 가족의 의미를 찾는 것임. 기본적으로 이 곳 센터에 등록된 아이들만 올 수 있음. 예외적으로는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 어학과정 수료를 위해 보육이 불가능한 경우 센터에 등록하면 일시적으로 보육을 맡길 수는 있음.

Q :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있는지?

A : 재정적인 분야, 즉 각종 수당 지급 등은 슈투트가르트 시에서 담당하고 있음. 센터에서는 가정상담을 통한 심리적인 지원, 구직활동을 위한 정보제공, 각종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Q : 센터에 등록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보육시설 입소에 관한 우선순위가 있는지?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별도의 우선순위가 부여되는지?

A : 슈투트가르트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보육시설의 수용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들어오려고 하는 인원은 많은 것임. 우선순위의 기준은 시에서 정하는데,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이 우선 순위가 되고 있음. 신청자가 이 곳 부모자녀센터 또는 민간보육시설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음.

Q : 한국의 경우 크게 공공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으로 구분되는데, 여기 센터는 보육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A : 독일은 크게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민간(사설) 어린이집으로 구분됨. 0~3세의 경우 공립은 매달 350유로, 사립은 600유로정도이며, 4~6세의 경우 공립은 매달 150유로, 사립은 300유로 정도임.

Q : 보육시설의 경우, 이 곳 센터가 사설어린이집과 다른 점은 어떤 것인지?

A : 가장 큰 차이점은 개방성의 유무임. 부모자녀센터는 개방성이 강함. 여기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과 같이 운영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만남의 장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음. 사설어린이집은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고 부모들은 들어갈 수 없음.

Q : 부모자녀센터 운영으로 인해 실제 출산율의 변화가 있는지?

A : 센터 운영으로 인해 출산율이 상승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음. 하지만 아이들을 용이하게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많다는 것은 분명 다음 출산에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함. 실제로 독일의 출산율은 조금 증가했음.

Q : 센터가 세대 간의 융합공간이라는 것이 이색적임. 운영과정에서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노인들과 같이 있다는 점 때문에 세대간 갈등과 같은 문제는 없었는지?

A : 문제는 없었음. 부모들이 아이가 노인세대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주로 여기 센터에 보육을 맡기게 됨.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분들은 센터에 아이를 보내지 않음.

Q : 보육시설에서 선생님 한 분당 아동 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있는지?

A : 규정은 있음. 0~3세, 4~6세가 각각 다른 그룹으로 구분되면 각 그룹별로 클래스를 이루는 아동 수에 대한 규정은 다름. 또한 이 규정은 독일 각 지역마다 다른 실정임.

■ 정책적 시사점

○ 아이돌봄센터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재능기부 활성화

- 자녀돌봄이 개인의 몫이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는 인식의 확산을 통해 주민들이 각자가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함. 또한 센터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여성취업지원을 위한 돌봄센터의 역할 제고

- 슈투트가르트의 부모자녀센터는 여성들이 서로 간의 자발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며 구직을 위한 열린공간을 형성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 여성들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언어도 배우며 독일에 적응하는 기간을 거침. 우리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돌봄센터를 연계해 외국인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데 용이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세대 간 융화를 위한 돌봄프로그램의 재구성

- 부모자녀센터에서는 세대 간 융합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이며, 할아버지·할머니도 센터에 와서 아이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해서 어울릴 수 있음. 즉, 모든 세대가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그룹을 가질 수 있도록 함. 현재 시행 중인 돌봄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세대 간 통합을 촉진하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임.

■ 기관방문 사진



2 하이델베르크 가족연합회 (10. 11. / 2일차)

■ 일반 현황

- 기관 정보
 - (명칭) Heidelberger Dienste GmbH und Familie
 - (주소) Hospitalstraße 5, 69115 Heidelberg
 - (대표번호) +49 6221 1410-0
 - (홈페이지) www.hddienste.de
- 역할 및 기능
 - 지역공동의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솔루션 개발 목적
 - 2007년 3월 창설, 230개 이상의 주체가 파트너로 참여
 - 직장과 가정의 조화 인증프로그램, 기업 내 돌봄전문가 교육 등

■ 기관 소개 내용(담당자: Tabea Tangerding)

- 가족연합회는 독일연방 정부에서 가족을 테마로 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립된 기관임.
- 2005년 경 연방의 가족복지부에서 가족 및 생활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고, 그 결과 도출된 정책들을 독일 전역에 활용.
- 독일 전역에 가족연합회는 670여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대학·병원·학교·기업체·의회와 서로 연계하여 일을 하고 있음.
- 하이델베르크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임. 즉, 일터에서의 사용자들과 원만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소통을 도모한 것임. 그 결과 사용자 측의 자금을 원천으로 하는 재단이 만들어 지고 직업과 가정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함.
- 프로젝트 수행결과 일과 출산 즉, 여성들의 취업 여부가 결국 출산율로 연결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 가족연합회에는 15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당 1명~2명 정도가 참여함으로써 총 200여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짐.
- 가족이 형성되고 온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직업이 필요하며,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음.
- 또한 직장을 잘 다닐 수 있게 보조하는 부분도 중점을 두었음. 아이를 편하게 맡기고 직장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것임.
- 직장과 직장을 잘 다닐 수 있게 하는 보조영역, 이 두 가지가 조화되어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양립될 수 있다는 의견임.
- 가족연합회에서는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조화의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 특히, 여성의 경우 가족 및 자녀양육문제로 일터에서 전문인력으로 남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여성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親가족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음.
- 여성들이 굳이 직장에 가지 않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홈워크로 일을 소화할 수 있게 연결시키면서, 기업의 사용자 측에도 이해시키는 정책임.
- 이로써 사용자측에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여성들도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상호간 WIN-WIN하게 되는 전략임.
- 親가족정책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온라인으로 구인구직활동을 연결시켜 주는 것임. 온라인 플랫폼에서 베이비시터, 초등학생 돌봄이 구인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것임.
- 일자리에 대한 지원은 여러 파트로 나뉘어 지며, 이는 일자리와 관련한 어려움도 여러 갈래이기 때문에 지원도 그에 따라 나뉘어져 있음.

- 그 중 하나의 특수사례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팀임. 자영업자들도 과중한 일로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함.
- 기업체에서 회사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정책을 시행했음. 직장에서 아이걱정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권면함.
- 부모들이 자녀 방학 때 일자리가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방학을 이용해 능동적인 프로그램인 직장체험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부부인 경우 남편의 직장이 있는 지역에 아내도 직장을 구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과 맞벌이 가정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역할을 바꿔서 해보는 프로그램도 진행함.
- 독일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자기에게 맞는 직장활동을 찾아보고 1주~2주정도 회사에서 실습을 해야 함. 실습을 할 경우에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학생의 경우 기숙형태로 실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60여명이 거주할 수 있는 숙소를 지원하고 있음.
-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사회화 분야임. 젊은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임. 직장을 다니는 여성의 비율은 전체여성의 83%정도임. 여성이 직장에서도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적인 경력 및 능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일을 하고 있음.
- 가족연합회는 부모 및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주로 관할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
- 유연성근무 활성화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의 하나임. 유연성근무에는 홈오피스, 파트타임 근무 등이 있고 그것의 활성화를 통해 가족과 일의 밸런스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임.

■ 주요 질의 · 답변 내용

Q : 가족연합회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려면 기업의 후원금 등으로만 운영되는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정의 참가비를 내야 하는지?

A : 기본적으로는 하이델베르크 시에서 출연된 자금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음. 이 자금은 기관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충당되고, 나머지 부분은 150개 파트너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있음. 진행할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각 파트별 소요경비가 결정되고 자금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가 결정되게 됨.

Q : 150개 파트너 기업들이 모두 하이델베르크에 속한 주에 있는 것인지? 이 곳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혜택을 입는 사람들은 무료로 참여하는 것인지?

A : 150개 모두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기업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 일반주민들은 별도로 돈을 내지 않음. 프로그램마다 해당 기업 또는 기관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음. 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기숙사의 경우에도 각 회사별로 몇 명에 대하여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Q : 가족연합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정도는 어느 규모인지? 후원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과 같은 별도의 혜택이 있는지?

A : 전체적으로 보면 파트별로 후원규모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음.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하이델베르크 시 재정에서 80%정도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20%는 기업의 후원으로 이루어짐. 후원은 꼭 돈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전기회사가 전기를 무료로 공급해주는 것도 후원에 포함됨. 후원기업에 대한 별도의 혜택은 없음. 자발적인 후원으로 가족연합회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개념임.

Q :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팀에서 주로 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A : 자영업자들의 모임 중에서도 창업모임에 대한 지원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음. 가족과 직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만남의 장을 열어주고 정보교환을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자녀교육에 있어서 정보교환을 통해 최적의 자영업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임. 매달 정기모임도 있으며, 마케팅 관련 교육도 있지만 주된 것은 그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임.

Q : 2007년부터 연합회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 670여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10년 이상 운영해오시면서 그간 주요성과를 말씀해주신다면?

A : 독일에서 가족연합회의 운영은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10년이상 운영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아이들의 보호문제였음. 여성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자녀를 어디에 맡겨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족연합회가 기여했다고 생각함. 또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음.

Q : 한국에서는 출산율과 일자리 개수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음. 하이델베르크 가족연합회의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해결에 기여한 것이 있는지?

A : 우리의 정책을 통해 독일의 출산율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함. 여성들이 아이를 안전하게 맡기고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자녀를 갖는 데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판단함. 또한 우리가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 유연성 근무 활성화는 장소와 시간에 덜 구애받는 직장과 가정생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하였다고 생각함.

Q : 연합회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취업을 하기 위해 이 곳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A : 가장 어려운 점은 기업의 사용자 측에 우리 연합회가 요구한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임. 예를 들면, 우리가 기업 내에 아이보육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그것은 매우 어렵게 받아들여지고 잘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취업에 대한 성공률은 수치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실직을 하게되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취업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세 번을 본인 의사에 의해 취업을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됨. 그래서 본인 의사에 반해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성공적인 취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Q : 연합회의 파트너가 150개의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이들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건지? 한국에서는 직장이나 아파트가 일정규모 이상이면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어떠한지?

A : 150개의 파트너 기업이 있고 회사별 1명 ~ 2명정도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총 200여명이 됨.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가 결정되면 그들 전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관련된 몇 개의 회사가 참여하게 되는 방식임. 독일에서는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하지만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함. 교회에서는 운영하는 것이 있지만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없음.

■ 정책적 시사점

○ 기업들의 일·가정양립정책 자발적 참여 유도

- 하이델베르크 가족연합회에서는 기업의 가족친화문화 조성과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기업들은 가족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음. 이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등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가족친화적 복지정책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직업과 가족돌봄의 조화는 결국 기업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개념이 성립되도록 해야 하는 것임.

○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독일에서는 출산이나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떠났던 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여성 사회화’에 방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개발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등의 개정과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기술과 IT분야에 있어서도 다양한 경력을 쌓고 실제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출산율 제고

- 여성이 일하는 직장에 자녀돌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親가족정책에 필수적일 것임. 단계적으로 직장에 육아시설을 설치하는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근무장소 및 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파트타임 및 재택근무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인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도 육아부담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기관방문 사진



3 프랑스 공립노인요양시설 MRI (10. 14. / 5일차)

■ 일반 현황

○ 기관 정보

- (명칭) Maison de retraite intercommunale
- (주소) 74 Avenue de Stalingrad, 94120 Fontenay-sous-Bois
- (대표번호) +33 1 41 95 41 00
- (홈페이지) www.mri-fontenay-sous-bois.fr

○ 역할 및 기능

- 파리 남동쪽 신도시(Fontenay-sous-Bois)에 위치한 공립노인요양시설
- 관공서에서 제공하는 노인요양프로그램 운영
- 노인주거의 문제를 제도권으로 이전하여 정부에서 대응

■ 기관 소개 내용(담당자: Magalie Rineau)

- Fontenay-sous-Bois는 파리의 동남쪽에 인구 5만 3천명의 도시로서 파리 주변의 도시들 중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요양시설은 Fontenay-sous-Bois시에서 100% 관리하는 것은 아니며, Fontenay-sous-Bois시와 주변의 4개의 도시가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고, 총 4개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음. 이 곳은 그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임.
- 1999년 4월에 노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건설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2010년 1월 12일에 시설이 개장되었음.
- 시설은 지방당국, 코디네이터 팀 의사, 직원대표, 가족대표가 참여하고 Fontenay-sous-Bois시장이 의장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관리하고 있음.
- 요양시설에 계신 노인들은 1인 1실에 거주하고 있으며, 식당이 각 층마다 여러 개가 있음. 노인들이 드시는 식사는 외부에서 조리를 한 후 가열만 해서 드시도록 하고 있음.

- 노인들이 거주하는 방의 면적은 25m²이며, 기본 가구는 제공하고 있으나, 본인들이 아끼는 물건 등은 직접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음.
- 현재 228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모든 방에는 한사람씩만 거주함. 부부의 경우에도 같은 방을 사용하지는 않음. 나이 드신 분들은 보통 같은 방에 거주하는 것을 불편해 하심.
- 각 방에는 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침대에서 갑자기 못 일어날 경우 일으킬 수 있도록 함.
- 식당에서는 20명이 식사할 수 있으며, 부엌에서는 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준비만 하는 것임.
- 매월 식당 메뉴와 관련된 회의가 진행되며 여기에는 시설관리자, 영양사, 주민 및 간병인이 참석하게 됨. 거주 노인들은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할 수 있음.
- 의무실에는 매 층마다 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간호사가 상주 하면서 노인들을 돌보고 있음. 프랑스에서 간호사가 24시간 근무하는 노인요양시설은 드물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4명의 봉급의사, 간병인, 노인심리전문가 들은 간호사와 함께 노인들의 생활상태에 따른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
- 그 외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정신운동치료사 등도 의료 처방에 적절한 도움을 주고 있음.
- 노인들의 일상적인 활동은 '애니메이션 팀'에서 주간운영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행사 및 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함.
- 활동프로그램은 개인과 집단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동반외출·보드게임·그림그리기·내부신문 작성 참여·바베큐 등이 매월 운영되고 있음.

■ 주요 질의 · 답변 내용

Q : 이 곳 노인요양시설에서 지내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시설이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별도로 있는지?

A : 시설입소에 따른 월 이용료는 2,400유로임. 입소 어르신들이 이용료를 내실 능력이 되는 분들은 내셔야 함. 이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안되면 그 자녀들의 재산상태를 파악해서 자녀들에게 요구하기도 함. 자녀들에게도 청구할 수 없다면 100% 국가가 지원하게 됨.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그 자녀들에게 모든 비용이 청구되며, 자녀들이 일부라도 지불할 능력이 되면 이용료를 내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하게 됨.

Q : MRI를 시설등급으로 구분한다면 어느정도 되는지? 한국의 경우에는 한방에 3~4명이 같이 있는데, 그런 시설이 있는지?

A : 시설을 건물로만 평가한다면 중·상급정도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제공되는 서비스 측면에서 24시간 간호서비스, 170명의 근무인력 등을 고려한다면 최상급으로 평가할 수 있음. 1999년에 프랑스에서는 모든 노인은 1인 1실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법이 통과됨. 그에 따라 대부분 1인 1실로 하고 있으며, 최저거주면적은 20㎡임. 그러나 아직까지 규정에 맞추지 못한 시설은 드물게 한 방에 두 명씩 거주하는 시설도 있음.

Q :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예산은 어느정도 되는지? 입소자들이 내는 2,400유로와는 별도로 정부의 지원금이 있는지?

A : 시설 전체 예산가운데에서 입소자들이 내는 2,400유로는 3분의 1정도를 차지함. 나머지 3분의 2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거나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음.

Q : 노인요양시설에 NGO나 자원봉사단체에서 봉사하는 인력이 있는지? 가족들이 와서 면회를 하게 되면 별도의 공간이 있는지? 면회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A : 외부에서 자원봉사를 하러 오는 경우는 거의 없음. 여기 상주하는 직원만 해도 170명 정도 되니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음. 아주 가끔씩 가톨릭 단체에서 봉사하러 오는 경우는 있음. 가족들이 면회하는 시간은 제한이 없음. 24시간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어르신과 개인방에서 숙박을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간이 침대를 제공함. 어르신이 임종에 가까워 졌다면 며칠동안 계속 같이 있을 수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요양시설 운영 주체로서의 노인계층 역할 활성화

-프랑스 공립요양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해당지역 사회 환경에 통합된 소규모 주택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입주자들은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음. MRI의 경우에도 ‘사회생활협의회’를 통해서 시설이용자는 운영과 관련된 모든 질문 및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고, 그러한 참여는 장려되고 있음. 지역사회와 연계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경우 운영에 있어 노인계층의 주도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요양병원과는 구별되는 노인전문요양서비스 기관 역할 재정립

- 프랑스의 경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요양기관과 노인전문의료기관의 역할이 구분됨. 우리의 경우 의료서비스보다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에도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요양병원은 중증도 이상의 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를 중심으로 서비스 영역을 개편하고, 의료서비스 필요성이 낮은 노인은 요양전문기관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며, 요양병원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함.

○ 저소득층의 장기요양 서비스 수혜를 위한 정책 마련

- 프랑스의 경우 요양서비스 이용을 위해 입소자들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으면 전액 국가의 부담으로 하고 있음. 저소득층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가족들의 경제적 상황도 크게 악화되므로, 서비스 수급여부 판단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기관방문 사진



4 프랑스 Issy-les-Moulineaux 사회관리센터 (10. 15. / 6일차)

■ 일반 현황

○ 기관 정보

- (명칭) Centre d'Action Sociale de la Ville de Issy-les-Moulineaux
- (주소) 47 rue du General Leclerc 92130 Issy-les-Moulineaux
- (대표번호) +33 1 41 23 80 00
- (홈페이지) <https://www.issy.com>

○ 역할 및 기능

- 사회적 배제자에 대한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 3세이하 아동 보육서비스, 취업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 노숙자 등을 위한 주거 및 재활서비스 제공

■ 기관 소개 내용(담당자: Emmanuelle Breuil-Salles)

- 프랑스 정부는 법과 의무조항을 규정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정부 규정에 따라 도시와 협의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함.
- 각 도시에 속한 사회관리센터는 'Social Action' 이라고 해서 시민의 건강, 노인 복지, 시민연대, 직업 문제 등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음. 공공·민간기관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기초의료보장, 퇴직금이 없거나 빈곤한 노인에 대한 노인수당, 장애수당 등을 지급함.
- 사회관리센터는 사회복지사업, 주로 빈곤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며 육아정책은 가족·인구정책으로써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음.
- 2019년도 이씨레몰리노시 사회관리센터 예산은 378만유로(50억) 정도임. 예산이 우리의 사업을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시민들에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예를 들면 교통비(지하철 요금) 지원,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활동 등임.
- 또한, 저소득 계층 및 거동불편 노인계층에게 음식을 직접 배달한다든지 직접 금전적으로 보조를 하는 활동도 하고 있음.
- 주요사업은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활동임. 장애인들을 위한 축제기획, 그들이 국가보조를 받기 위한 서류 작성 시 도움을 주는 것 등임.
- 또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여행 등 문화활동도 계획하고 있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보조요원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음.
-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이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작은 가게에 그들이 와서 음식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가져갈 수 있는 일정한 상한선 있음.
- 정원과 관련된 사업도 있는데, 정원에 여러 사람이 함께 꽃, 야채 등을 심으면서 그들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임.
- '서쪽 세느강의 연합회'사업은 노숙자들을 위해 숙소를 제공하는 것이며, 20명을 수용할 수 있음. '카페 115'도 있는데 노숙자들에게 음료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임.
- 또한 노숙자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연합회와 연계하여 그들을 노동시장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함.
- 노인계층에 대한 사업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직접 집으로 배달되는 서비스임. 예를 들면 식사를 배달한다든지, 직접 가서 청소를 해준다든지 하는 것임. 두 번째는 조금은 활동이 가능한 분들은 다른 분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외부에서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임. 세 번째는 노인계층을 돕는 사람들, 요양보호사와 같이 직접 노인들을 케어하는 인력을 위한 사업분야임.

- 노인복지분야와 관련해서 우리 센터와 연계된 협회도 있으며 이러한 기관들과는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노인계층을 위한 지원활동에는 4가지 분야가 있음. 첫째는 사회문화적인 활동임. 카페에서의 문학토론, 영화 관람, 사회·정치를 주제로 한 모임에서의 공부 등이 그 예임. 둘째는 요즘 발전하고 있는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신기술 교육이며, 셋째는 그림그리기와 같은 예술활동 지원분야이며, 넷째는 스포츠활동 지원분야임. 여기 이씨레몰리노 거주 노인들은 스포츠활동에 관심도 높음.
- 노인계층을 돕는 도우미들을 위한 여러 사업도 있음. 그들에 대한 정신적인 상담, 마사지 의자 제공 등 재충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함.
- 노인복지분야와 관련해서 우리 센터와 연계된 협회도 있으며 이러한 기관들과는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노인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프랑스는 현재 요양시설보다는 재가서비스를 확대하는 추세로 전환 중에 있음.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은 개인부담을 높여 재가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함. 반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의존도가 높은 수준의 노인은 시설로 입소하여 돌봄서비스를 받도록 함.
- 이씨레몰리노 사회관리센터에서는 '씨몬느베일'이라고 하는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이곳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명의 일반의사, 3명의 산부인과 의사, 2명의 조산사, 1명의 치과의사, 2명의 간호사들이 진료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 씨몬느베일에서는 가족건강과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는데, 부부관계에 대한 상담 및 조언, 11세~20세의 젊은이들에 대한 성병 및 성폭력예방에 관한 교육, 정신과 상담 등도 진행하고 있음.

■ 주요 질의 · 답변 내용

Q : 이씨레몰리노시에서 별도로 재정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A : 2019년 예산 378만유로의 구성은 시에서 마련하는 재원이 70%이고, 나머지는 매년 다르지만 광역자치단체와 의료보험공단과 같은 유관기관에서 지원해주고 있음. 매년 많은 유관기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임.

Q : 국가가 주는 재원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확보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을텐데, 국가가 주는 재원은 어느정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지?

A : 전체 예산 가운데서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은 최대 10%정도임. 나머지는 시 자체에서 확보하는 예산이며, 이는 이씨레몰리노 시민들이 내는 여러 가지 세금이 재원으로 쓰이게 됨.

Q : 다른 시와 차별화된 이씨레몰리노 사회관리센터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있는지?

A : 다른 시와 비교해서 이씨레몰리노에서만 실시하는 특수한 정책은 없음. 다만, 시의 재정규모에 따른 사업의 규모는 차이가 있음. 재정적으로 소규모인 주변의 시에 비해서는 사업규모가 크다고 생각함.

Q :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어떤 것이 있으며, 지급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

A : 우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가정 하에 62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음. 일을 해야 하는 연간 기간을 채워야 하며,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65세까지 일을 해야 함. 직장을 다닐 때 받는 급여의 수준에 따라 받게 되는 연금의 금액은 편차가 다양함. 프랑스 전국적으로 보면 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1,250유로임. 이것은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이며, 직장을 다니지 않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저 지급 연금은 868유로임.

Q : 재산보유 규모에 관계없이 868유로는 모든 사람에게 최저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인지?

A : 최저연금을 지급받는 요건은 우선 6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일정한 재산 규모 이하여야 함. 프랑스에서 10년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받을 수 있음. 재산 규모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조건에 맞으면 지급하게 됨. 직장을 다닌 기간이 적어서 연금이 300유로 밖에 안된다면 나머지 568유로는 국가에서 보전해주게 됨.

Q : 연금을 받는 노인계층에게 의료시설 및 교통비 등의 지원제도가 있는지?

A : 최저연금 868유로 이외에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있음. 공공교통수단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박물관에도 무료로 이용하는 것 등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됨. 병원에 가는 것은 특별한 우대 지원정책은 없지만 중병(당뇨, 심장질환, 암 등)에 관한 치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음.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결정되게 됨.

Q : 최저연금액인 868유로와 평균연금액인 1,250유로를 받으면 프랑스에서 생활하기에 적절한 금액인지?

A : 사실상 868~1250유로로는 프랑스에서 생활하기에 부족한 금액임. 그래서 프랑스의 노인들이 노란조끼를 입고 시위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음. 하지만 프랑스 어느 지역에서 생활하시느냐에 따라 편차가 클 것임. 퇴직하시고 나서 민간기업에서 일했던 분들은 평균 임금의 70%정도를 연금으로 받고, 퇴직 공무원들은 50%정도를 받고 있음.

Q : 한국의 전업주부들은 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어떠한지?

A : 전업주부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음. 남편이 없고 직장을 다니지 않았다면 868유로를 받음.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868유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부 합산 1,250유로를 받게 됨. 만약 남편이 연금 수령액이 굉장히 많다면 아내는 연금 받을 권리를 잃게 됨.

Q : 여성의 출산과 육아기간을 일반 직장인들의 연금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프랑스에서는 어떠한지?

A : 프랑스에서도 출산 및 육아휴직기간은 연금계산기간에서 제외됨. 프랑스에서는 여성의 출산휴가는 2~3년 정도 주어짐. 직장을 다니면서 출산휴가를 가게 되는 경우 급여는 없지만, 사회보장 연금기관에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게 됨.

Q : 재가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서비스도 별도로 있는지?

A : 재가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음. 첫째, 재가 도우미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신변처리, 가사지원 등 활동지원 전반에 도움을 주고 있음. 둘째, 재가 간호 서비스는 의사처방에 의해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로 지원하는 것이며, 셋째, 재가 장애인 특별서비스로서 성인 장애인들이 학교에 갈 때 이동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예산의 30%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70%는 중앙정부 교부금 및 광역자치단체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사회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직접적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 프랑스의 경우 저소득층, 장애인, 노숙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음식, 일거리, 문화활동, 가사서비스 등을 직접 수혜대상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립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음.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기보단 대상자들의 사회복귀, 자립을 위해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의 확대를 고려해야 함.

○ 노인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보호서비스 활성화

- 프랑스에서는 재가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노인들로 하여금 시설수용을 극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지역요양서비스가 발달되어 있음. 재가노인들을 대상으로 주택개량사업, 주택수당제도, 가사원조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계층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친지와 더불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며,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있는 것임. 노인계층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재가보호서비스 영역의 다양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 노인복지사업 종사자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등 제공

- 이씨레몰리노 사회관리센터에서는 노인계층 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을 위해 정신적인 상담, 재충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복지사업 최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종사자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사업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음.

기관방문 사진



5 프랑스 가족연합회 (10. 16. / 7일차)

■ 일반 현황

○ 기관 정보

- (명칭) Un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Familiales
- (주소) 28 Place St Georges, 75009 Paris
- (대표번호) +33 1 49 95 36 93
- (홈페이지) www.unaf.fr

○ 역할 및 기능

- 가족간의 원활한 유대관계, 가족 이익의 보호를 목표로 함
- 1945년에 설립, 전국차원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
- 중앙정부를 상대로 가족정책에 대한 정책제의 혹은 로비 역할

■ 기관 소개 내용(담당자: Jean Philippe Vallat)

- 프랑스 가족연합회는 정부에 의해 1945년에 설립되었으며, 정치적 이념과 관계없이 모인 많은 시민단체를 하나로 엮은 연합회임.
- 연합회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는데, 첫째는 가족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하며, 아이들에 대한 보육시설 서비스에서부터 노후문제까지 전 생애에 걸친 가족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연합회는 70여개의 중앙지부가 있고, 각각의 중앙지부마다 소속된 시민단체가 있음. 전체 시민단체의 숫자는 파악하기가 어려움. 가입되어 있는 가족의 숫자는 70만 가구정도임.
- 가족정책을 연합회에서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것은 아님. 정부나 의회에서 가족에 관한 정책이 발의되면, 연합회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가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크게 세 분야에 집중하고 있음. 첫 번째는 경제적인 지원정책임. 아이들의 교육비 지원 등 가족이 경제적으로 좀 더 풍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임. 두 번째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가정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도록 하는 것임. 최근 부모들의 노동량이 많아지면서 가정에서 아이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짐. 세 번째는 부대서비스 분야임. 유치원 등의 보육시설 설립을 통해 부모들이 마음놓고 아이들을 맡기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경제적인 지원정책에 관해 부연설명을 드리면, 프랑스에서 자녀 한 명이 정상적인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1년에 6,000 ~ 9,000유로 정도임. 총 소요경비의 4분의 1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4분의 3은 부모가 지원하는 것임.
- 노동시간은 여러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이고, 우리 연합회가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부모의 노동시간이 가능한 적어야 한다는 것에 우리의 포커스는 맞추어져 있음.
- 부대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보육시설 및 보육서비스임. 프랑스에서는 3세가 되면 모든 아이들이 취학통지서를 받게 됨. 3~5세의 아이들은 'ecole maternelle' 에 다니게 되는데 의무교육 과정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실제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시설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 가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1945년부터 정부와 함께 펼쳐오고 있는데, 연합회에서 가장 성공을 거둔 것은 출산휴가 부문이며, 그 중에서도 남성의 출산휴가임. 오랜 노력으로 남성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11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2000년 이전에는 오직 여성만 3개월의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었음.

- 한 가지 아쉬웠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음. 2008년부터 유럽의 경제 불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공무원 인력 감축, 공공지출분야 축소 등 프랑스의 긴축재정정책의 기초가 계속되어 왔음. 이로 인해 가족들에게 지원되던 경제적인 지원이 삭감되었고, 연합회에서는 이를 막아보려 했지만 전체적인 기초를 거스를 수는 없었음.
- 성공적인 정책은 하나의 정책이 결정된 후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정책임. 아이를 키우려면 오랜시간 소요되고, 가족도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변화가 심한 정책은 혼란을 초래할 것임.
- 또한, 모든 계층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책이 성공적임. 부유한 가족이라고 해서 혜택을 줄이거나 빈곤한 가족이라고 혜택을 많이 준다면 그 정책은 전반적이 지지를 받기 어려움. 모든 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이 바른 정책·성공한 정책이 될 것임.
- 프랑스의 출생율에 대해 설명드리겠음. 결혼한 가임여성이 갖고 싶어하는 아이의 숫자는 한국은 2.2명이며, 프랑스는 2.4명임. 이 결과는 크게 차이가 없어보임. 2018년 기준 프랑스의 실제 출산율은 1.8명임. 2014년까지는 2 또는 2를 상회하는 출생율이었다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출생율이 감소하였음. 우리 연합회에서 파악한 출생율 감소의 원인은 2008년 이후 유럽경제 침체기간 동안 복지지원 서비스의 감소에 따른 불안감이 증대된 것임.
-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모들의 노동시간이 가정이나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임. 그만큼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게 됨. 프랑스의 주당 근로시간은 35시간이며, 파리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 아버지의 출산휴가를 최대한 확대하는 것과 출산휴가 기간 동안 충분한 경제적인 보수를 뒷받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합회의 정책 기본방향임.

■ 주요 질의 · 답변 내용

Q : 70만 가량의 가정이 연합회에 참석한다고 하셨는데, 좋은 정책은 전반적으로 모든 계층이 수혜를 받는 것이라고 하셨음. 70만 가정이 프랑스 전체 가족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인지?

A : 연합회의 통계로는 프랑스 전체에는 대략 1,800만 가정이 있음. 70만 가정이면 3~4% 정도 될 것임. 연합회가 70만 가정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님. 1,800만 모든 프랑스 가족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Q : 프랑스는 다문화 가정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체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3~5세 유치원의 경우 학급당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A : 프랑스는 성문법 상으로 아이를 체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체벌의 경우 꼭 다문화가정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함. 프랑스 내에 다문화 가정이 많긴 하지만, 어떤 인종사이의 가족 구성이 문제가 더 많다고 파악되지는 않음. 아동 체벌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119번으로 전화하면 기관에 통보되고 조사가 이루어짐. 가정 내 폭력문제가 발생된 것이 확인되면 아이를 데려와서 위탁가정에 맡기게 됨. 연합회에서는 가정 내 문제가 있더라도 부모와 아이가 같이 있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입장임. 유치원의 경우 한 반은 20~25명의 학생들로 구성되며, 2명의 교사(정교사와 보조교사)가 배정됨.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에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보육되는데, 집에서 보육하는 경우,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 일정한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베이비시터로서 본인 집에서 3~4명의 영아들을 보육하는 경우임.

Q : 3세 이전에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이 3가지가 있었는데, 이 경우 각각의 양육방식에 대한 지원금이 같은지?

A : 세 가지 방법 모두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가장 많이 지원을 받는 것은 보육시설에 맡길 때임. 두 번째는 위탁가정에 보육을 맡기는 경우이며, 마지막은 가정에서 직접 보육할 때임. 프랑스 모든 국민들은 1년 중 10월달을 전후로 해서 소득을 신고하게 되는데 모두 국세청 전산자료로 DB화가 되어 있어서 그 자료로 소득 등급을 나누게 됨. 등급표에 따라 복지관련 서비스가 제공되며, 학교 급식 지원, 보육과 관련해서 이 등급에 따라 지원정도가 차등이 나는 것임.

Q : 가장 성공적인 정책은 모든 계층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소득에 따른 복지지원 차등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A : 좋은 가족정책은 모든 사람이 균등한 수혜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이나 아주 빈곤한 가정이 동일한 액수의 지원을 받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는 의미는 아님. 두 가정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것이 좋은 정책임. 최근 프랑스 파리 변두리에 외국 이민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지역이 있는데, 이 곳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그들의 교육 방식은 프랑스의 일반적인 교육방식과는 많이 달라서 연합회에서는 이민자들의 교육방식에 대한 지원을 고심하고 있음.

Q : 한국의 경우 0세~6세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아동수당에 대한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A : 일반적으로 자녀수당은 전년도 소득신고에 따른 소득등급별로 차등 지급되며, 아주 부유한 가정도 적은 금액이지만 수당을 받게 됨. 아이가 한 명이면 수당이 없으며, 둘일 경우 평균 월 130유로 정도 받고, 셋일 경우 300유로를 받음. 반면, 소득수준이 일정 등급 이상일 경우 전혀 받지 못하는 수당도 있는데, 학용품 지원비의 경우 새학기가 시작되면 지급되지만 일정 등급이상의 계층은 받지 못함. 또한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자녀 숫자에 따라 세금 감면이 결정되게 됨. 자녀 숫자가 많으면 세금 감면의 폭이 커지게 되므로 부유한 계층이 감면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다수임.

Q : 아이를 한 명 키우는데 연간 6,000~9,000유로 정도 든다고 하셨고, 경제적인 국가지원은 총 소요경비의 4분의 1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소득계층에 따른 지원인지?

A : 말씀하신 4분의 1은 여러 가지 재정지원으로 총당되는데, 지원을 위한 계산의 기본이 되는 것은 매년 하는 소득신고임. 소득신고가 모든 복지서비스 지원의 기준이 되는 것임.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올해 복지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기준이 2년 전의 소득신고가 기준이 됨. 연합회에서는 사용되는 기준을 2년전이 아닌 직전연도 기준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시스템 상 조속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매년 하는 소득신고는 프랑스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거의 모든 기준이 된다고 보면 됨.

■ 정책적 시사점

○ 가족정책의 장기적인 일관성 유지 및 합리적 보편성 확보

- 프랑스 가족연합회에서 강조하는 가족정책에 있어 주안점은 정책적 일관성 확보를 통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크게 변화하지 않음으로써 가족들에게 안정된 삶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임. 또한 정책 시행에 따른 수혜자들이 일정 기준에 따른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함으로써 모든 계층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함.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장기플랜에 따른 안정된 가족정책 시행을 도모해야 하며, 다양한 계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세부계획이 뒷받침 되어야 함.

○ 가족정책분야로의 재정지출 확대

- 최근 4년간 프랑스의 출생율 감소는 2008년 이후 유럽의 경제 불황으로 인한 공공지출분야의 축소에 기인한다는 것이 가족연합회의 의견임. 가임여성이 갖고 싶어 하는 자녀의 수와 실제 출생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및 안정된 정부의 경제적 서비스 지원의 유무에 기인할 것임. 가족정책은 국가의 유지를 위한 근간이 되는 정책이며, 종국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재정지출의 증대가 요구됨.

○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 및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활성화

- 부모의 근로시간이 가족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가족연합회에서는 강조하고 있음.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적다면 저출생 기조는 계속 될 것임. 근로시간 단축 및 부모의 공동육아가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기관방문 사진



6 Age UK (10.17./8일차)

■ 일반 현황

○ 기관 정보

- (명칭) Age UK Hammersmith&Fullham
- (주소) 105 Greyhound Rd, Hammersmith, London
- (대표번호) +44 20 7386 9085
- (홈페이지) www.ageuk.org.uk/hammersmithandfulham

○ 역할 및 기능

- 2009년 2월에 영국에 등록된 노인전문 자선단체
- 노인과 간병인 및 가족을 위한 조언 및 상담서비스 제공
- 노인들의 심리치료 및 상담치료, 네일케어 서비스 등

■ 기관 소개 내용(담당자: Peter Thellusson)

- Age UK는 'Help the Aged and Age Concern'의 합병으로 설립되었으며, 기금 모금을 통해 모금된 자선기금이 연간 4,700만 파운드, 520개 이상의 자선 상점 등을 운영하여 발생한 수입금이 연간 1억 6천만 파운드 정도 되는 영국 최대의 노인전문 자선단체임.
- 런던은 서른 두 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고, 이 곳은 Hammersmith&Fullham 구에 속해 있는 자선단체임. 전체인구는 20만명 정도임.
- 구청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국가자선단체이나, 정부보조금만으로는 재정이 부족한 실정이며 여러 단체에 기부금을 받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자선단체임.
- 센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있고, 제가 하는 일은 Age UK의 사업에 대한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매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임.

-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인들 개개인의 인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임. 노인들은 퇴직 이후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등 많은 사회적 관계가 무너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거기에서 오는 외로움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며,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음.
- 또한 법률관련 자문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채무관계로 인해 법률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자문을 제공하며, 컴퓨터 교육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음.
- 서비스 제공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어르신들의 건강임.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작은 버스를 이용해 시각장애어르신 및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다른 교통수단이 있어 많이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역적인 한계가 있음.
- Age UK는 독립된 기관이지만 마치 우산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 런던 모든 구에 한 곳의 센터가 있음. 모든 구의 인구층이 다르므로 지방정부에서는 인구현황에 따른 예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가 많다면 우리는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상황에 따라서는 센터를 더 설치할 수도 있음.
- 정부에서는 고령인구에 대한 지원정책이 별도로 있고, 우리는 그 정책의 목표 및 효과에 대한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정부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
- 센터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여기로 오셔서 활동하고 있고, 전체 운영 인력의 25%정도가 자원봉사자들로 채워지고 있음.
- 지금 보시는 곳은 수공예를 가르치는 학습방이며,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노인들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영국은 NHS를 운영하고 있어서 의료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음. 1947년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전액지원하고 있음. 우리는 의사 등 전문 의료인력들과 연계해서 노인들이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가장 중요한 것은 점점 높아져 가는 고령화율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과 노인계층을 돌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정부에 알리는 것이며, 이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임.
- Age UK에서는 작은 가게도 운영하고 있음. 자선단체마다 별도로 운영하는 가게가 있으며, 영국에서는 그곳에서 쇼핑을 많이 하는 편임. 각자의 가정에서 안쓰는 물건을 내놓으면 자선단체에서 가게에 상품으로 판매해서 자선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임.
- 최근에는 모든 복지지원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하면 인터넷을 이용해야하므로, 컴퓨터를 쓰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교육도 실시하고 있음. 교육비용은 복권기금에서 충당하며, 복권기금은 다 같이 인터넷을 사용하자는 슬로건 아래 지원하고 있음.
- 우리는 한국의 복지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독사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들이 사회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 즉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 한국에서는 정부기관에서 복지관을 주로 운영하고 있지만 영국의 경우, 자선(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임.
- 어르신들은 4파운드의 가격으로 여기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으며, 우리는 런던 외곽으로 투어를 하루정도 계획해서 어르신들과 같이 가기도 함.
- 가장 어려운 일은 항상 새로운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임. 어르신들은 새로운 것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주요 질의 · 답변 내용

Q : 센터로 들어오는 기부금이 많다고 들었는데, 현황이 어떠한지? 센터를 이용하는 연간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A : 센터 운영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정부보조금임. 기부금은 매년 변동이 있지만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차지함. 연간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인원 수는 15,000여명임. 하루에 65~78명 정도의 인원이 우리 Age UK 센터를 방문하고 있음.

Q : 센터를 이용하는 금액은 무료인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득이나 연금에 따른 이용에 차등이 있는지?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별도의 지원이 있는지?

A : 기본적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데 있어 차등은 없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이 지역 주민들은 모두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이용에서의 별도 지원은 없지만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음. 영국은 주당 168파운드를 지급하고 있음. 이 금액보다 소득이 적다면 168파운드 모두 지급함. 프로그램 이용은 대부분 무료이지만, 일정한 프로그램은 1파운드 정도의 금액을 내고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음.

Q : 프로그램 중 런치클럽은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와서 먹는건지? 한국에서는 마을별로 경로당에 찾아가서 저녁나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곳에서도 그러한 서비스가 있는지?

A : 런치클럽의 경우 이 곳 센터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음. 4파운드를 내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만들고 나눠 먹는 프로그램임. 그러면서 친구를 만들고 사회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임. 영국에서는 이곳이 한국의 경로당에 해당함. 한국과는 시스템이 다르지만, 정부에서 센터로 그러한 업무를 위탁한 것임. 그 이유는 위탁하는 것이 경비가 더 절감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Q : 도심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센터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의 지원이 있는지?

A : 이 지역의 인구는 20만 정도 되고, 센터는 성격이 각기 다른 자선단체 중의 하나임. 우리가 도심 외곽지역에 계신 분들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음. 여러 자선단체들이 서로 중첩되게 서비스 지역을 맡아 노인들을 케어하고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노인의 개인적 인격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 Age Uk에서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 관계가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노인계층의 무력감 및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노년기의 대표적인 특징은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기회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부정적인 자아개념이 높아지는 것임. 따라서 노인에게 활동유지와 역할유지를 지속시킬 수 있는 여가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노인복지서비스의 핵심임.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맞춤형 여가프로그램 개발

- Age Uk는 런던의 32개 구별로 위치해 있으며,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매진하고 있음. 건강관련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 노인의 특성과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존에 시행하던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내용 및 전달방법의 고령친화성을 재검토해야 함.

○ 노인여가관련 복지활동 영역에서 민간 역할 확대

- Age Uk는 노인복지정책의 일부분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에 위탁한 형태로 볼 수 있음. 고령화가 계속 진전됨에 따라 다양화하고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여가활동 지원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 개입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민간의 역할이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임.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서비스의 공공적 가치에 부응할 수 있는 기관을 선별하여 위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함.

기관방문 사진



7 Southwark 복지부(10. 18. / 9일차)

■ 일반 현황

○ 기관 정보

- (명칭) Southwark Council
- (주소) Southwark Council, 160 Tooley St, London SE1 2QH
- (대표번호) +44 020 7525 3806
- (홈페이지) www.southwark.gov.uk

○ 역할 및 기능

- 복지 및 연금정책을 담당하는 영국의 정부기관
- 장애인의 생활수당 및 간병인에 대한 지원정책 수행
- 취약계층의 아동생계비, 가족중심의 안정된 생활지원

■ 기관 소개 내용(담당자: Kerry Florish & Simon Rayner)

- 우리 복지부에서는 크게 세분야로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음. 먼저 사회복지분야, 두 번째는 보건분야, 세 번째로 보조금(정책지원금)분야임.
- 런던은 32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는 카운슬러가 대표를 맡고 있음. 여러분들이 오신 곳은 Southwark council임.
- 장애인들에 관한 정책은 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지적발달장애가 있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각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또한 그들이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 2014년도에 제정된 Care법과 Children Family Act의 핵심은 장애인들이 어떻게 하면 일반인과 동등하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가임.

- 전체적으로 Southwark의 인구는 30만 ~ 32만 정도이고, 25세 미만의 아이들은 7,260명이 장애인이며 일반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음. 어른들은 5,800명이며, 오로지 지적장애인의 숫자임. 전체 장애인의 숫자는 인구의 16.1%에 해당하며, 런던평균 14.4%보다도 높음.
- 25세 전후로 나눈 이유는 영국 정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25세로 정했기 때문임. 따라서 25세 전에는 신체적인 장애와 지적 장애를 다 더한 숫자이고, 성인의 숫자는 지적장애인의 숫자임.
-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음. 학교에 대한 지원,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정부보조금이 있음. 정부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만 지원하는 것이며, 지방정부에서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예를 들면 장애인을 위한 길 정비 및 교육, 도서관 운영 등임.
- Southwark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장애인의 숫자는 아이들과 어른을 포함해서 1,115명임. 이 분들은 장애정도가 심각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며, 그 중 절반정도가 25세 이하임. 25세 이하 장애인의 97%정도는 발달장애(자폐)임.
- 우리가 2년동안 해온 일은 이전에는 복지서비스에 있어 성인과 아이를 나누는 기준이 18세였는데, 이것을 25세로 변경하는 일을 했음. 그래서 18세~25세의 아이들이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 이것은 southwark구만이 유일하며, 다른 구에서도 25세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 중임.
-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진행 절차는 우선 장애여부에 대한 판단이며, 이는 GP(한국의 보건소에 해당)의 의사가 장애여부 및 등급을 판정하고 southwark council에 등록하면 어떤 서비스 및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council에서 판단하게 됨.

-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25세 이상 또는 이하인지, 지적장애인지 또는 신체장애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다를 것임.
-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모든 장애인들이 사회 내에서 차별 받지 않고, 스스로 일반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독립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임. 우리 council에서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투명하고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적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일을 하고 있음. 최근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장애인들의 IT기술 활용분야임.
- 장애인들에게 직접 연금을 지급하는 일은 중앙정부인 노동연금부에서 하고 있음. 지방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수당은 없으며, 우리는 DLA(disability living allowance)를 제공하고 있음.
- DLA는 두 가지 서비스인데, 하나는 장애인들이 도시 내에서 이동할 때 교통비를 지급하거나 그들을 수송하는 차량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다른 하나는 장애인들에게 복지사가 직접 방문해서 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임.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교통비를 지급하거나 차량을 제공하는 것들임. 아까 말씀드린 1,115명의 장애인이 이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음.
-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 서비스의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등급이 낮다면 중앙정부의 서비스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고, 지방정부에서는 등급이 높은, 즉 장애정도가 심각한 분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는 경우, 근무시간이 비장애인에 비해 적어서 급여 및 수당이 적은 경우가 있음. 이를 보전하기 위해 장애인들의 노동시간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중앙정부에서 지급하고 있고, 지방정부에서는 심각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 취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함.

■ 주요 질의 · 응답 내용

Q : 한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독립을 위해 보조하는 활동보조인이 있는데 24시간 보조서비스를 원하는 의견이 많음. 영국에서도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있는지?

A : 영국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24시간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님. 장애등급 확인 등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제공하고 있음.

Q : 장애인이 개별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모여서 생활하는 경우, 활동보조인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A : 영국에서는 장애인들이 거의 개인집에서 생활하고 있음. 생활은 각자 가정에서 하고, 낮에 나와서 교육을 받거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임. 모든 지원은 장애등급에 따라 하고 있으며, 장애정도가 심각해서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을 하고 있음. 집에서 활동보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Care Home 또는 Nursing Home과 같은 집단 거주시설에 입소하게 됨. 영국에서도 약 30년 전에는 집단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더 격리되고, 독립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함. 따라서 그러한 집단거주시설이 차츰 사라지게 되었음. 각자 개인 집에 거주하면서 사회와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장애인들에게 더 건강한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Q : DFG(Disability Facilities Grant)서비스는 어떠한 것인지?

A : DFG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집에서 다른사람의 도움없이 그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장치를 지원하는 것임. 예를 들면 복층집에서 아래층부터 윗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계장치 지원이라든지, 집주변의 턱을 없애거나 공간을 넓히는 등의 지원서비스임.

Q : 치매는 한 가정을 위협하는 큰 질병인데, 치매환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설명해주신다면?

A : 치매에 관한 지원서비스는 Southwark council내에 별도 담당부서가 있음. 상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애인 서비스와 거의 비슷하게 제공되고 있음. 핵심적인 것은 치매환자도 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Q : 영국에서는 장애인 단체들이 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지? 별도로 장애인 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는지? 25세의 의미를 강조하셨는데 그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신다면?

A : 영국에서는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직된 협회(union)가 없음. 이 곳에서는 법으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만약 차별을 받았다면 council에 와서 신고를 하면 됨. 장애인들을 위한 자선단체는 아주 많이 있고, 그 단체들은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음. 자선단체들은 비영리 공공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자원봉사단체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으며, 그들도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변호하고 지원하고 있음. 또한 엄격하게 법에 의거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단체들 사이에서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 상호 감시하는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음. 25세의 의미는 영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나이임. 영국은 누구든지 25세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므로 정부지원금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임.

Q :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이 있는지?

A : 우리는 'Southwark works'와 긴밀히 협력하여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고용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자치구 내의 다양한 자발적 지역 단체조직과 협력하여 개인에게 전문적·재정적 조언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Southwark Resource center'는 우리가 운영하는 서비스로, 신체 또는 학습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수업이외의 일상생활(화장실 가기, 식사 준비 등)에 있어 독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숙달된 직원이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음.

Q : 장애아동을 위한 학비지원, 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는지?

A : 일반 장애아동 및 학습장애아동에게 우리는 지속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Enhanced Intervention Team'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이 팀은 건강 및 사회 복지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위기에 처해있는 가정의 장애아동에게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사회적인 소통 및 정보전문가들은 장애 아동들에게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소통기술에 대해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 기타서비스로는 'Family Link' 서비스로 장애아동이 위탁보호자와 몇 시간에서 밤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으로 가족들이 장애아동을 위탁하고 잠시 쉬는 'short break'로 명칭함. 또한 'sunshine house'라고 해서 장애정도가 심각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설립된 아동발달센터가 있음. 이 곳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호팀이 별도로 있으며, 가정학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목표로 한 서비스 제공

- 영국의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목표는 그들이 사회 내에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장애인 스스로도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장애인의 자립생활 강화를 위한 정책은 장애유형 및 연령대별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세밀하게 기획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력

- 영국에서는 장애등급이 높아서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현재 우리는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사로 명칭만 개정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었으나, 혹서기 등 건강상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활동지원 서비스의 개발도 필요한 실정임.

○ 장애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확대

- 영국은 일반장애아동 및 학습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아동들이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및 정보습득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장애아동이 가족과 함께 장애를 극복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독립적인 삶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기관방문 사진



VI 총 평

○ 금번 2019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부모자녀센터의 경우 자녀돌봄에서부터 여성의 구직활동지원까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돋보였으며, 하이델베르크 가족연합회는 연합회, 기업체 등 일자리 관련 주체 및 대학, 의회 등 여러 기관이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협업을 하는 프로세스의 구축이 잘 되어 있어 다양한 프로젝트의 수행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음.
- 프랑스의 공립노인요양시설은 노인주거 및 요양복지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네 기관이 협력해서 시설운영협의체 운영 및 요양 프로그램 개발로 노인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씨레몰리노 사회관리센터는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이 상호 간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입안에 있어 세심한 배려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프랑스 가족연합회는 가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와 환류과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는 모습이 고무적임.
- 영국의 Age UK는 점차 증가하는 고령화율에 대비해 노인계층의 개인적 인격보장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사회적 관계가 상실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음. Southwark 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지원단체과 함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였음.

한인소식 경북도의회 의원 유럽연수단 영국 방문 재영동포들과도 깜짝 만남

10월 17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유럽 3개국 공무국의출장 마지막 방문국인 영국에서 노인지원 시설과 구청 복지부를 방문한 뒤 영국에 사는 경북도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영국대경회 회원들과 만나 정보 교환과 교류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박영서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을 비롯한 김상조, 김하수, 김희수, 나기보, 박미경, 배진석, 홍정근 위원 등 9명의 경북도의회는 이날 오전에는 해머스미스에 있는 노인요양 시설 Age UK Hammer-smith & Fulham을 방문해 노인지원에 관한 자선단체의 역할과 영국 정부의 지원정책을 듣고 질의했으며, 오후에는 서던 Southwark 복지부를 방문해 장애인 지원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에 대해 설명을 듣고 논의했다.

특히 이날 저녁에는 공식 일정이 아닌 영국 교민과의 만남이 마련됐는데 영국대경회(회장 박화출) 회원들과 만난 도의원들은 영국 한인사회의 현황을 듣고 경북도와 영국 한인사회의 교류와 상생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등 이날 바쁜 하루를 보냈다.

이번 경북도의원들의 유럽 출장은 보



건 복지 관련 해외 선진사례를 수집하고 해외 전문기관을 벤치마킹하며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노인요양, 돌봄서비스를 조사해 경북도의 정책이 주목하고자 기획된 것이다.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선진 사례와 전문기관을 벤치마킹 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극복,



Age UK에서 도의원들은 지역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노인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이를 시행하는데 드는 예산을 모으는 방안, 지원인력 운영법, 영국 정부의 노인 연금 정책,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 노인 주거지원 등에 대해 자선단체의 설명을 듣고 견학하며 현장에서 질의하는 체험을 했다.

Southwark 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지원 예산과 수당 지급 현황, 장애인들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방안,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과 사회참여 프로그램 마련 방안,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 재활치료 서비스, 장애아동에 대한 학비 및 치료 지원 등 주로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 방안에 대해 지방정부의 설명을 듣고 의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 시간에 갑자기 마련된 짧은 만남이었지만 경북도 출신 영국 교민들과의 만남은 화기애애한 가운데 경북도와 영국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박영서 위원장은 "해외에서 동향 인사를 만나 기쁨이 배가 됐다. 영국에서 경북도민 출신이라는 긍지를 갖고 열심히 사는 여러분의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인사했고 박화출 회장은 "해외에 살면 저절로 애국자가 되면서 애정심도 크진다. 사랑하는 고향 경북도의 발전을 위해 도의원들께서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2019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국외연수는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3개국의 보건 복지 시설을 방문하는 것으로 독일은 슈투트가르트 부부자녀센터, 하이델베르크 사회복지회사, 프랑스는 HPAD 공립노인요양 시설, UNAF 프랑스가족연합회 등을 방문 견학했다.

한인앰블리지



아동돌봄, 가족친화 정책의 방향을 연구하고 도정에 실제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국에서는 독립된 지역 자선단

체인 노인요양시설 Age UK와 영국 지방정부의 대표 격인 서던 Southwark 카운슬 복지부를 방문하게 된 것이다.